

영암군 300만 생활인구 타깃 관광전략 나선다

등록인구 대비 50배 ↑ 축제 등 3대 전략 수립

전라남도 영암군의 생활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생활인구를 타깃으로 한 전략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년 생활인구 통계에서 영암군의 생활인구가 30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영암군 등록인구 6만1000명 대비, 무려 50배에 달하는 수치다.

생활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지역 체류 통근자·관광객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현실 인구를 포괄하는 인구 개념인 셈이다.

생활인구 유입 증가는 지역 축제, 이벤트가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4월 왕인문화축제 개최, 8월 월출산기찬랜드 운영, 10월 국화축제 기간을 전후로 생활인구가 집중 증가했다. 그중 8월 생활인구는 30만5554명으로 등록인구의 5배에 달하는 최대치를 기록해 축제 등 지역 이벤트가 생활인구 유치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1·2·12월에는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었고 12월 기준 생활인구는 24만 2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 분석을 통해 영암군은 생활인구 유입에 축제·농업·관광 등이 큰 효과를 거둔 만큼, 단계적 생활인구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가보고 싶은 영암’ 핵심 전략은 통계로 검증된 관광·축제 활성화다.

영암군은 대표 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 월출산국화축제, 지난해 첫 개최된 한옥문화비엔날레와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로 전국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유입된 관광객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암 여행 1+1 할인 캠페인, 월출산권 관광개발사업, 남도음식거리 조성, 대동공장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여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머물고 싶은 영암’을 위해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와 위케이션센터 조성의 속도를 높이고 장기 체류 귀농·귀촌 프로그램, 농촌 체험, 방문객 재방문 유도 사업, 삼호읍 외국인특화거리 조성 등도 추진 중이다.

‘살고 싶은 영암’으로 정주인구 유치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전일 지원금, 초·중·고·대학생 입학축하금, 이사비용, 이주안심사업 등으로 정주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영암군은, 공공주택 공급, 지역활력타운 조성, 미래형 농촌공간 정비 등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창업지원센터 조성, 귀농·귀촌 맞춤형 상

담, 취직사회 책임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단계적 생활인구 전환 전략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중점사업 등 국가 재정투자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로 뒷받침하고 있다.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대 핵심 프로젝트로는 △청년 정주 타운 ‘울영 지역활력타운’ △문화·창업 복합거점 ‘기찬영암 창업·문화타운’이 있다.

이밖에 영암군은 ‘생활인구 50만 캠페인’, 디지털 영암군민증 발행 등 홍보로 지역사회에 생활인구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을 찾는 곳에서 머물고 살아보는 곳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연 생활인구 300만명을 기반으로 월 생활인구 50만을 달성하고 이들이 정주인구로 살아가도록 인구정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군, 차광제·영양제 긴급 지원 관내 원예·과수 농가 대상

전라남도 영암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15일부터 긴급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원예작물의 생육 안정을 위한 이번 긴급 조치는 시설하우스 온도 저감 차광제 지원, 과수 생육 회복 영양제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설하우스 차광제는 시설 외부에 도포하면 내부 온도를 평균 3~8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최대 3개월 지속된다.

옻겨 심거나 접목한 작물의 살아난 비율인 활착률을 높이고 초기 원예작물의 생육 안정에 기여한다.

영암군은 농협과 함께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추·멜론 공선출하 농가 중 7~8월 모종을 심는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농가에는 농가 수요에 대응해 생육 회복용 영양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차광제와 영양제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470-2382)에서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전기 자동차·이륜차 총 157대 보급 완도군, 출고·등록 순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은 ‘2025년 하반기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자동차 130대(승용 85대, 화물 45대), 전기 이륜차 2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별·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030만원이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170만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완도=정대영 기자



강진군 우체국 집배원이 택배 소포를 전달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일부터 우체국 배달망을 활용해 월 2회 취약계층 가구에 생필품을 대면 배송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진군, 우체국 배달망 활용 안부살핌 서비스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 8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소포물을 발송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7월 첫 우편배달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만큼 우체국 집배원 및 읍면 복지담당공무원이 함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직접 확인하며 대

상에 맞는 맞춤형 물품(생필품)을 배달했다.

올해 처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강진파수편지)’ 사업은 우체국의 배달망을활용해 집배원이 월 2회 취약계층에 놓인 1인 가구에 물품(생필품)을 대면 배송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

강진군 제공

시 군과 읍면에 전달해 위기상황을 대응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중장년 1인가구, 은둔형 외톨이(고립청년) 등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 50가구이다.

노인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목우암, 전통사찰 지정

불교사적·문화재적 가치 인정

전라남도 무안군은 몽탄면 달산리에 위치한 사찰 ‘목우암’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 사찰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무안에서 21년 만에 이뤄진 전통 사찰 신규 등록으로 1988년 지정된 법전사와 원갑사, 2004년 지정된 도덕사와 약사사에 이어 목우암이 다섯 번째 전통 사찰로 이름을 올렸다.



역사성과 함께 불교 고유의 문화·예술·건축사적 가치를 지닌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통 사찰은 지정 이후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

무안=김행언 기자

‘흑산 섬 영화제 영상’ 공모 신안군, 내달 3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신안군은 ‘2025 흑산 섬 영화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8월3일까지 받으며 내용은 흑산도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영상물이면 모두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2025 흑산 섬 영화제’라는 주제로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사업으로 진행하며 섬의 일상을 영상이라는 언어로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해상도 1920x1080 크기 규격에 맞춘 5~10분 이내의 영상을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올린 뒤 구글폼을 통해 출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상 제목은 ‘작품명 2025 흑산 섬 영상 공모전’으로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HIFF #흑산도 #흑산섬영화제를 기입해야 한다.

공모전의 총상금은 1000만원이며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1팀) 100만원, 장려상(2팀)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8월15일 ‘2025 흑산 섬 영화제’ 흑산도 사리마를 현장에서 상영된다.

부대행사로는 트레킹, 캠핑, 메이킹 체험 등 트레일 참가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섬 트레일페스티벌 ‘메이크 섬 노이즈’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은 ‘2025 흑산 섬 영화제’ 공식 누리집(hiff.sit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라남도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이 관람객을 위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 도자기 체험은 오는 19일부터 8월17까지 운영되며 현장 방문 순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총 다섯 가지로 물레 체험, 빚어 만들기, 핸드 페인팅, 시계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8000원에서 1만2000원이며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 정시(오전 10시·오전 11시·오후 1시·오후 2시·오후 3시·오후 4시)에 체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낵사진 촬영 이벤트가 마련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촬영된 사진은 체험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된다.

참여자만든 작품은 약 4주간의 자연 건조 및 가마 소성을 거쳐 도자기로 완성되며 완성된 작품은 박물관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누리집(http://doja.mokpo.go.kr) 또는 전화(061-270-84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